



## 생명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충북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

고객홍보처

지난 4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과  
충북농업기술원은 'ONE-STOP 한우아카데미'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지도사업을 통해  
생명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충북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을 만났다.

---

미생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생물 융합기술을 농축산 분야에 접목하여 산업화함으로써

미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축산전문가로서 한우, 양돈, 낙농 연구회를 조직하여 축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차선세 원장님의 소개와 충북농업기술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차선세 원장(이하 차)** 지난 2015년 8월 제28대 충북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여 40년 가까이 농촌진흥공무원으로 재직해 오고 있습니다. 축산업무를 담당하며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1994년 충북한우연구회를 시작으로 충북양돈연구회, 충북낙농연구회를 조직해 지금까지 축산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 창조농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모든 직원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국과 기술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6개의 연구소는 지역별로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옥천 포도, 단양 마늘, 음성 수박, 보은 대추, 영동 와인, 괴산 유기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 지난 4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과 충북농업기술원이 'ONE-STOP 한우아카데미'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한 한우 고급육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 'ONE-STOP 한우아카데미'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기술지원 및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과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의 경우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한우 사양단계별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아카데미를 통해 도축과 경매, 가공과정, 축산물 등급제 및 이력제 교육과 더불어 진행하니, 지금까지 사양기술 교육에서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한우산업 발전에 'ONE-STOP 한우아카데미'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커니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ICT활용 등 4차 산업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차**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집약형 스마트팜 첨단농업을 육성하는데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는 스마트팜과 ICT 스마트하우스 연구시설이 5동(3,9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원예 분야에 10종 9개소에 5억 9천만 원, 축산 분야 6종 10개소에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ICT를 활용한 첨단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은 농업에도 큰 변화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IT, BT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원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축** 충청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 저변 확대와 충북도의 유기농특화도 조기 달성을 위해 미생물 연구센터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 고부가가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생물 소재인 토착 유용미생물을 선발하여 농업, 축산, 식품 등 다양한 분야 제품화로 생명산업과 유기농특화도 건설에 기여하고자 2017년 1월 25일 미생물연구센터를 충청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내에 조직하였습니다. 미생물연구센터는 친환경연구과장을 센터장으로 연구사 2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토착미생물 선발 및 현장실용화 미생물제재 개발을 위해 모든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생물 융합기술을 농축산 분야에 접목하여 산업화함으로써 미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은 지난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이제 국내산 축산물 요구에서 벗어나 안전한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축산 관련 모든 기관, 그리고 축산 농업인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만들고 유통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입니다. 천재와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인간이 패배한 원인은 혼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컴퓨터와 연계해서 함께 이세돌에게 대적했는데 이세돌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축산 관련기관과 단체, 농업인이 함께 노력해 나아갈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

